

다산포럼

개인사와 명품의 관계방정식 ‘블루 재스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명품은 일상어가 되었다. 주로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온 값비싼 물건을 뜻하는 명품이란 말은 명품 거리, 백화점 명품관을 만들 어냈다. 그러다가 이제는 토착 감성과 결합 하여 명품 한우, 명품 꽃마음, 명품 들레깅 등등... 온갖 데 갖다 붙이는 꾸밈말로 사용 되고 있다.

우리는 명품이란 말에 중독돼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명품 중독을 관찰해 볼 흥미로 운 영화가 등장했다. 수다의 미학을 보여주는 우디 알렌의 ‘미드나잇 인 파리’를 비롯 하여 유럽의 고풍스런 도시 산책을 마갑하 며 뉴욕으로 돌아와 만든 ‘블루 재스민’이

바로 그렇다.

제목을 듣자마자 ‘블루 문’이 떠오른다. 이 곡은 빌리 할리데이, 냇 킹 콜, 줄리 런던 등 세대를 넘어 즐겨 불려지는 전설적인 재즈이다.

재즈광이자 재즈 연주가이기도 한 우디 알렌이 이런 제목을 붙이고, 영화의 시작과 끝에 이 곡을 넣었다. 한 달에 두 번째 뜨는 달인 ‘블루 문’의 상사롭지 못하지만, 마음 끌리는 감흥력이 산파된다.

재스민이 비행기 안 앞자리 노인에게 질릴 정도로 퍼붓는 일방적 수다에서 영화가 열린다. 뉴욕에서 누린 화려한 인생 드러내기가 핵심이다. 재스민은 하얀 샤넬 재킷에 루이비통 가방세트를 들고 등장한다. 명품 향유가 그녀의 취향이자 삶의 가치이며, 미덕으로 묘사된다.

그녀가 도착한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 남루한 구석은 동생이 사는 집이다. 명품 제공자인 부자 남편이 사기꾼 사업가이자 바람둥이라는 진실의 발견은 그녀를 붕괴시킨다.

호화 주택에 살며 명품을 휘감고 즐기던 파티, 기부금도 내며 살아가는 뉴욕 상류 1%

인 그녀는 진실의 발견 후 숨조차 쉴 수 없 어 떠났다. 영화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재스민이란 인물의 속내, 개인사적 편린을 뒤집어 보인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사람을 믿으며 누린 상류 생활은 날아가 버렸다. 그래도 습관과 취향은 쉬이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두르고 다닐 명품이 있고, 빈털터리여도 습관적으 로 일등석을 타고 왔다.

영화가 진전하면서 그녀의 허영과 거짓이 때론 소소하게 때론 과격하게 드러난다. “명품 속내를 관찰하는 코미디란 이런 것이구나!” 노장 우디 알렌의 인간 관찰, 특히 여성 속내 관찰력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은근하게 감기는 재즈까지 곁들여지니 청각적 쾌락도 함께한다.

샌프란시스코 거리에는 명품 거리가 없다. 당연히 돈도 없다. 동생에게 얹혀살면서도 그녀는 동생의 남자친구를 투저라고 비웃고, 부자 남자를 만날 꿈에 집착한다.

“내가 홀로 서 있는 게 보이죠, 내 마음에 희망도 사랑도 없어요.” ‘블루 문’의 가사처럼 서글퍼도 솔직하게 속내를 고백할 용기

나 의지도 그녀에겐 결여되어 있다.

망가져 가는 재스민은 영화 속 인물이니 거리를 두고 구경하는 재미가 넘쳐난다. 그런데 현실로 걸어 나와도 명품 두른 여성들이 여기저기 눈에 뜨인다. 프랑스산 명품 주객이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이란 통계가 나오기도 한다.

재스민의 가방, 루이비통은 지난 10년간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490억에서 4900억으로 한국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뉴스도 나온다.

프랑스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처럼 표시가 드러나는 명품을 두르지 않는 편이다.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인간 명품 되기가 멋있는 인생의 비결인 것 정도는 상식이니까.

그래서 재스민의 명품중독증은 역사의식 결여가 개인사 의식 결여로 이어져 허영과 광기로 폭발하는 처량한 몰골로 드러난다. 우디 알렌이 유럽 산책 후 미국의 속내를 이 전보다 더 강렬하게 뒤집어내는 솜씨가 웃음의 미학으로 터져 나온다.

탐·재스민 역의 케이트 블라쳇이 신명나는 연기 혼을 보여준다.

NGO 칼럼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 이제 여성 스스로 이야기하자



최희연
광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좋은 몸, 나쁜 몸, 이상한 몸’. 수년 전 흥행했던 영화의 제목을 패러디한 제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절도하게도 맞아떨어진 표현이다.

올해 민우회에서선 여성의 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여성 스스로 말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몸, 나쁜 몸, 이상한 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의 몸에 대

한 경험과 생각을 여성 스스로 함께 얘기하기 시작했다. 임신·출산·낙태·외모차별·다이어트·월경·폭력·성형·성적관계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붓물 터지듯 쏟아지는 경험과 이야기를 속에는 서로 다른 사연들이지만 여성이어서 느껴지는 공감대가 자연스 럽게 이어가됐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같은 여성으로서 느껴지는 자매애이고 때로는 불편함이며 때로는 차별적인 시선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여성 스스로 이야기하고 담론화 하는 과정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이 중에서도 정말 드러내기 어려웠던 경험은 낙태에 대한 경험일 것이다. 낙태에 대한 경험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경험을 볼 때 둘 다 우리 사회에서 드러내기 어렵지만 성폭력은 피해자로 인식한다면, 낙태는 가해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 드러내기 어렵다.

세대를 이어가며 경험한 낙태, 할머니 세

대는 대를 잇기 위해, 어머니 세대는 가족계획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미혼은 미혼이라는 이유로, 기혼은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을 해왔고, 여전히 선택을 하고 있다.

연간 20만 명이 넘게 낙태를 하지만 낙태에 관한 논쟁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빠진 채 여전히 생명과 선택이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며 수면 위에 올랐다 가라앉 았다 하고 있다. 법적·제도적·사회 인식 차원에서 진전은 없고 여성들의 현실은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물꼬를 터보자. 낙태 논쟁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당사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성에게만 책임과 비난이 쏟아졌던 낙태에 대한 여성의 경험과 언어를 드러내기 시작해야 한다. 임신과 출산, 사회적 구조, 피임과정에서의 권력 관계 등의 상황과 맥락도 함께 이야기돼야 할 것 이다.

여성들이 사회적 시선 때문에 느꼈던 두

려움이나 위축감을 떨치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건강한 담론이 형성될 것이다.

오는 4일 동구 서석동 광주여성복합문화관에 서 ‘자, 이제 댄스 타임!’이라는 낙태관련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여성주의 영화 제작소 ‘야’에서 제작을 했고 광주인권영화제와 민우회가 함께 진행하며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상영을 제안 한다.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오는 17일 ‘좋은 몸, 나쁜 몸, 이상한 몸’에 대해 여성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담은 극 공연이 광주 콘텐츠 산업 지원센터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지역에서도 이런 장을 계기로 여성들의 몸에 관한 이야기에 여성당사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데 여성이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

광주지역 택시 카드결제 57%뿐이라니

광주지역 택시 10대 중 4대에 카드결제기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들의 불편이 크다고 한다. 카드결제기 장착률이 57%에 그쳐 광주를 방문하는 외지인들과 택시운전자 사이에 카드 사용 여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등 광주의 이미지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10억여 원을 들여 택시 1500대에 카드결제기(1대 당 70만 원 지원)를 설치했으나 단말기 불량 및 노후, 시스템 에러에 따라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형 국제행사 및 이벤트들이 예정되자 다시 2억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불량 카드결제기 1500대를 포함해 총 2459대의 카드결제기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했다.

하지만 광주시내 영업용 택시 8221대 가운데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택시는 4672대로 장착률은 57%에 그치고 있 다. 전국 7대 광역시 중 대구(62%)를 제외한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울산의 장착률이 100%인 것과 비교하면 겉을 마 수준이다.

문제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사업이 중단됐다는 점이다. 시 대중교통과는 지난해 말부터 예산부서 에 3억5000만 원이면 나머지 택시 3500대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할 수 있다며 수차례 예산 배정을 요청했으나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도 재정난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카드 결제가 생활화되고, 평소 카드로 요금을 내왔던 외지인들에게는 불편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와 다름도 잦다니 지역 이미지마저 먹칠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당장 예산을 마련해 전체 택시에 대한 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한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니 만큼 시민과 외지인의 불편을 외면해선 안 된다. 예산 지원의 선후를 따지는 이 유도 시민들의 편의에 있질 않는가.

충간소음 갈등 해소, 실질대책 필요하다

아파트 충간소음 기준을 담은 법제정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달 30일까지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출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광주지역 제출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아파트단지 629곳 중 약 20곳만 개정된 관리규약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충간소음을 규정할 데시벨(dB)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4개월도 되지 전에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충간소음문제는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다. 올 들어 광주시에 접수된 충간소음 관련 문의전화는 80건에 달했고, 관련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광산구에서는 충간소음문제 때문에 흥기로 வீ집 주인을 찌른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충간소음문제로 위층에 사는 40대 여성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렇게 충간소음 갈등이 날로 늘고 있는데도 관리규약 제출률이 낮은 것은 주민들이 개정된 시행령을 공감하지 못한 데 있다. 또 충간소음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비용이 65%를 넘는 현실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충간소음 갈등을 더 이상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법 개정을 다시 해서라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선진국의 예를 참고해 충간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일부 주는 관리사무소의 경고를 3회 이상 어기면 강제 퇴거 조치한다. 독일과 영국에서는 경고 누락에 따라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식도 변화해야 한다. 충간소음을 건강한 삶을 해치는 공해로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인 대 개인보다는 명확한 기준으로 분쟁을 해소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고

창조경제와 F1



박봉순
F1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부장

우리 지역에서 F1대회를 개최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3년 연속 16만명 관람객 유치,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영암 경주장의 모터스포츠 메카로서의 자리매김 등 소소한 기쁨도 있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동차 튜닝과 모터스포츠 산업 육성’이 현 정권의 창조경제 모델에 가장 부합하다는 의견이 모

아져 활성화와 종합대책이 마련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른바 창조경제란 창의성이 경제의 핵심 가치로 과학기술, 도전적 문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이끌어 내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한다.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창조경제를 설명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F1대회를 가장 잘 묘사하는 용어들이란 알 수 있다.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다. 그 아이디어를 경제적 가치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창조경제인데 그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가 직접 나갈 수도 있고 그 아이디어와 다른 아이디어가 복합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 최종 단계는 투자다. 투자 없이는 상품이 안 된다. F1에 대한 지금까지의 손실은 곧 투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F1 자동차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 항상 새로운 기술과 스피드를 열망하는 엔지니어와 드라이버의 도전 의식, 이 도전이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규제 합리화, 자

동차 산업과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레저 문화의 결합 등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식이 끼워 맞추기식이며, F1대회 개최로 당장의 수치구조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비판이 가능하다. F1대회 관람객 중의 일부는 묘하게 생긴 자동차가 트랙 위를 질 세 없이 반복 주행하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는지 반문하곤 한다. 마치 규칙을 모르고 보는 야구경기와 김연아라는 슈퍼스타가 탄생하기 전에 피겨 스케이트에 흥미를 못 느끼듯이-.

하지만 F1코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되면서 국내에도 많은 마니아층이 생겨났다. F1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각각이다. 누군가는 질풍 같은 스피드와 성난 엔진음에 매료되 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공기역학, 에너지 효율 등 최첨단 기술에 흥미를 느낀다. 어떤 이는 성난 소처럼 질주하는 자동차가 사고로 완전히 망가져도 드러내버는 말정하게 걸어 나오는 안전함에 흥미를 느끼기도 한다. 아니면 조각 미남인 드라이버와 명차 브랜드

의 팬이 되기도 한다.

단순한 호기심과 흥미가 집약되면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산업화로 이어지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우리는 술하게 보아 왔다. 아마 정부 관계자들도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정책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과 정부의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볼 때 F1대회는 일부 스포드 광이 즐기는 고급 스포츠가 아니라 출퇴근 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하나의 문화산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로 이어지고 창조경제의 발판으로 이어지는 옳은 길인데도 발걸음이 무겁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응원해 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는 시점이 원대 더더욱 그렇다. 영암에서 F1대회가 열리는 오는 4월~6월에는 그 따뜻함이 더 늘 어났으면 좋겠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대한민국 어느 곳에나 있는 모형을 보고 이렇게 반가울지 몰랐다. 경남 통영 강구안의 ‘나폴리 모텔’을 보자마자 꼭 한번은 보고 싶었던 누군가를 만나는 기분이었다.

나폴리 모텔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 ‘하하하’에 등장하는 곳이다. 간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하하하’는 통영의 구석구석을 보여준다. 나폴리 모텔도 그 중 하나다. 영화에 등장하 는 또 다른 장소인 서호 시장도 반갑고, 뽕보할 매집에서 먹은 총무김밥과 통영의 명물 팔방도 맛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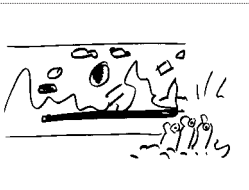
사실, ‘하하하’를 보면서 가장 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주인공 문소리의 집이 있는 동네다. 카메라는 통영 골목 골목을 자주 보여 준다. 그 중에서 조금은 특별한 곳에 자리한 문소리 집이 기억에 남았다. 촬영 장소는 통영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동쪽의 벼랑’을 뜻하는 동피랑이다. 동피랑은 벼화마을로 유명하다. 지난 2008년부터 조성된 이곳은 요즘 봄을 일으키고 있는 벼화마을의 원조쯤 된

다. ‘기림을 온 벼래벼에 가리노이 불켜 켜 곳(그림을 온 벼에 그려 놓으니 불개 많다)’이다.

동피랑으로 가는 길은 많다. 어느 언덕으로 오르느냐에 따라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 있다. 이성한 나라의 앨리스도 만나고, 어린왕자도 만난다. 시인 백석의 시 한편도 감상할 수 있다. 프로 작가의 느낌보다는, 조금은 어설피듯한 그림들이 오히려 인상적이었다.

드라마 ‘착한 남자’에서 주인공 문태원이 운영했던 카페와 할머니 바리스타의 솜씨를 맛볼 수 있는 작은 가게도 재미있다. 짝 목이 마를 때쯤 나타난 ‘몽마르조’ 카페에서 냉커피 한잔 마시며 내려다본 강구안의 전경도 기억에 남았다.

우리 지역에서도 벼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어쩌면 가장 쉽게 눈에 띄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벼화다. 하지만 스토리가 없는 게 아쉽다. 광주·전남 곳곳에도 마을의 실황과 같은 구불 구불 골목길, 이야기가 있는 벼화들이 어우러진 ‘재미남’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비슷비슷한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 다양화해야

현재 광주나 목포 등 주변 대도시에서는 우리 전라남도 농촌으로 팜스테이를 가거나 농촌으로 체험 여행을 떠나는 학생, 학부모들이 많다. 이런 것을 일컬어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한다. 도시인들이 이런 농촌으로의 체험여행을 많이 다닐수록 농가소득도 높아지고 농촌에 활기도 넘칠 것이다.

하지만 농촌관광이 늘어날수록 농촌마다 프로그램이 약간씩 비슷하고 중복되다 보니 부모를 따라 농촌에 갔던 청소년들이 약간 식상함을 느끼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며칠 전에도 고향에서 체험관광을 했

는데 여기에 찾아온 중학생이 “저는 이거 다른 데서 해본 거니까 빠질게요”라고 했다 는 말을 들었다. 목장에서 하는 치즈 만들기 가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신기했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두세 번 해보니 흥미를 약간 잃었던 것 같다.

우리 농촌에 도시인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전국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은 체험을 하도록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지역마다 그 특성을 살려 체험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 마을의 특성을 살려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자는 것이다.

도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농촌에 아이들 전용 대형수영장을 만들거나 현대식 건축물을 짓는 것은 그야말로 어설피른 농촌의 모습일 것이다. 그보다는 가을에서 물놀이하게 만들고, 낚았지만 정감 가는 시골 농가에서 하룻밤 묵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편의를 위한다면 깨끗한 화장실과 욕실 정도면 충분하고 대신 냇가의 쓰레기를 치우는 등 깔끔한 환경조성이 더 좋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특산물을 도시인들이 많이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농산물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자. 즉 생산지, 생산과정, 품질, 맛과 효능 같은 걸 아주 세심하게 알려 준다면 도시인들은 그만큼 더 믿고 살 것이다.

▲주현·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제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